

## 고독성 작물보호제 '제로화 실현'의 이면(裏面)

고독성 작보제 제로화 실현, 정부·소비자 모두에 고무적 결실  
기업이익 사회 환원 넘은 산업계의 '나눔·희생' 정신 감지됐으면...



박학순 이사  
작물보호협회 교육홍보부

탄생이 투명하고 역할도 명료한 작물보호제의 시련이 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끊임없이 요구되는 각종 안전성 강화 요구는 차치 물론 하고 막연히 나쁜 것인 양 인식, 폄하하는 세론(世論)과 고유의 농업용도가 아닌 비정상적인 사례의 오용문제까지도 작물보호제 자체의 결함으로 귀속시키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본래 목적과 상관없는 어이없는 사고가 연발하는데 대한 대책일환임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렇다 해도 농약의 적용대상은 분명 사람이 아닌 농작물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같은 작물보호제의 억울한 희생이 단번에 그칠 가능성이 없다는데 기인한다. 언제든 같은 희생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착한 선례는 아닌 듯 싶다.

### '공익적 효과' 위한 희생과 절제된 양보

정부는 최근 국내에 농업용 고독성 작보제가 없어짐으로써 사실상 고독성 작보제의 제로화를 실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보통 및 저독성 작보제만이 유통·사용하게 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저약량·고활성화 추세가 현실화 됐음을 알려 국민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사용자 소비자 모두를 위한 고무적 결실이며 산업계로서도 당연히 안도하며 견해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어딘지 모를 한 켠에 개운치 않은 씩씩함을 떼어내기 어려우며, 간과하기 어려운 고리하나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다. 바로 고

독성 작보제 제로화 실현의 '이면(裏面)' 이 감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독성 작보제 제로화 실현 배경에는 정부의지 이외에도 그야말로 적지 않은 희생을 감수하며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한 산업계의 나눔의 정신이 같이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공(?)을 앞세워 생색을 내지는 게 아니다. 어차피 동 약제의 시장은 구우일모(九牛一毛) 정도였으며, 목숨 또한 경각에 이르러 있는 시한부 삶이었다. 그럼에도 그 영역을 펼쳐내야 하는 산업계의 고민과 결단은, 다양한 공익적 효과를 염두에 둔 희생과 양보라는 대의가 아니었으면 애초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경이었을 것이다.

### 작보제에 대한 '성숙된 인식' 기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음도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계는 오래전부터 단순한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넘어 장학사업은 물론 각종 기업의 크고 작은 나눔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또 당연한 활동으로 인식한다. 그럼에도 '지난(至難)한 과제'이며 '나는 기업이다' 라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산업계 심정일 것이다.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결과 농약규제분야가 세계 1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영광(?)을 향유하고 있는 나라다. 세계적으로 작보제 규제가 가장 잘 된 나라이니 업계로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소비자들은 크게 웃어도 될 일 아니겠는가?

변화무쌍한 작물보호제의 진보를 보는 세간의 이목이 진보하지 못한다면 그건 모두의 불행이다. 또한 작보제에 대한 작은 빌미(?)라도 놓지 않으려는 기습 아픈 노력들을 보노라면 공감되지 않은 무엇인가가 솟구친다. 굳이 과학과 문명을 멀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엄격한 농약관리시스템과 사용법 준수, 소비자 인식의 진보는 작보제 자체의 안전성에 버금가는 중요한 요소다. 이들 3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안전성은 극대화되는 것이다.

올바른 사용 및 유통관리, 인식 제고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산업발전을 위해 진력하는 정부는 물론 학, 연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소중하지 않은 가치가 없겠으나 '먹는 가치' 보다 상위일 순 없을 것이다. 첨단 우수작보제 보급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쉽 없이 노력하는 산업계의 '보이지 않는 역할' 도 차제에 감지되었으면 한다. 더 이상 작보제에 대한 안전성이 이슈화 되지 않는, 성숙된 인식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㉞